

徐永彬·编著

The background of the cover is a vibrant, abstract collage. In the upper left, a stylized hand in yellow and green is shown holding a pen, with several colorful lines (red, orange, yellow, green) trailing off towards the right. The rest of the background is a dense, multi-colored pattern of squares and rectangles, resembling a cityscape or a digital mosaic in shades of blue, purple, yellow, and red.

韩国 现代 文学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韓國現代文學

徐永彬 編著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京)新登字 182 号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现代文学/徐永彬编著. —北京: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1997

ISBN 7-81000-831-5

I. 韩… I. 徐… III. 文学-作品综合集-韩国-现代 IV.
I312.61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97)第 12929 号

© 1997 年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出版发行

韩国现代文学

徐永彬 编著

责任编辑:朴淑子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北京惠新东街12号 邮政编码:100029

北京飞达印刷厂印刷 新华书店北京发行所发行
开本:850×1168 1/32 7印张 180千字
1997年8月北京第1版 1997年8月北京第1次印刷

ISBN 7-81000-831-5/H·186
印数:0001—2000册 定价:9.50元

책머리에

중국과 한국은 거의 반세기 남짓한 동안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체제와 이념을 달리한 채 서로를 모르면서 지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후 짧디짧은 이 몇해 동안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는 쌍방이 지정학적인 위치 말고도 새로운 아세아—태평양시대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적 관계면에서, 경제적으로 나서는 상호보완성면에서 그 협력관계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두 나라 사이의 이러한 협력관계는 21세기에 대비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더욱 절박하고 절실하게 요망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간의 단절의 장벽은 하루 아침 사이에 쉽게 허물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새롭게 설치된 한국문학강독과의 교과서로 될 《한국현대문학》의 편집 임무를 맡고 수십권의 문학전집, 선집 류의 책들을 바라보며 아름차 하던 3년전의 기억이 오늘도 새롭다. 수십년간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문학을 20만자 이내의 교과서로 편집해낸다는 게 나에게는 능력상 판판 역부족이었다. 아뭏든 오늘 이런 모습으로라도 이 교과서가 완성되기까지는 여러분의 도움이 많았음을 밝혀두고 싶다.

이 책은 대학교 3—4학년 한국어과 학생들의 교과서로 만들어졌다. 대체로 2년간의 기초한국어 교육을 마친 뒤면 3—4학년에 와서는 핵심과목으로 한국문학강독과가 있게 되는데 이 과목의 학습을 통해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초보적인 파악과 더불어

주로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을 묶을 때에도 언어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여 너무 어렵거나 방언이 많거나 무속적인 내용의 것들은 될수록 회피하였고 이해가 쉬운 수필이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성격이 교재용인 관계로 원본의 표기와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랐다. 선정된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 말미에 작가와 작품해설을 간단히 덧붙였으며 단어해석은 편목상 제한으로 제일 어려운 것들만 골라 하는 것으로 했다.

정해진 분량관계로 많은 좋은 작품을 실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여 독자 제원과 동료들의 아낌없는 충고를 바란다.

서영빈

1995. 1.

차례

책머리에	1
제1과 힐러 짓는 光化門	1
제2과 독서와 인생	5
제3과 메모광	10
제4과 送年	15
제5과 자화상	19
제6과 삶의 슬기	38
제7과 현이의 연극	42
제8과 비 앞의 클로우버	47
제9과 님의 침묵	63
제10과 진달래꽃	67
제11과 나의 침실로	70
제12과 거울	76
제13과 서시	80
제14과 사슴	85
제15과 광화사	88
제16과 메밀꽃 필 무렵	96
제17과 소나기	110
제18과 殘骸	125
제19과 수난 이대	157
제20과 서울 1964년 겨울	174
제21과 匿名의 섬	200

제1과

헐려 짓는 光化門

설의식

헐린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이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총독부 청사 까닭으로 헐리고 다시 총독부 정책 덕택으로 짓게 된다.

광화문은 원래 물건이다.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며, 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밟히면 꾸물거리고 죽이면 소리치는 생물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의식 없는 물건이요, 말 못하는 건물이라, 헐고, 부수고, 끌고, 옮기고 하되 반항도, 회피도, 기뻐도, 설어도 아니한다. 다못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한 조선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아까와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오랫동안 풍우(風雨)를 같이한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어도 보고 설어도 할 뿐이다.

석공(石工)의 마치가 네 가슴을 두드릴 때, 너는 알음이 없으리라마는 뚜닥뚜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슴을 아파한다. 역군(役軍)의 둔장이 네 허리를 들칠 때, 너는 피롬이 없으리라마는 우지끈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허리를 질려 한다. 과연 네가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8도 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를 뽑아 지은 광화문아!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흘렀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렀던 광화문아! 청태 끼인 돌

틈에 이 흔적이 남아 있고 풍우 맞은 기둥에 그 자취가 어렸다
할진대, 너는 옛모양 그대로 있어야 네 생명이 있으며,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네 일생을 마친 것이다.

비바람 오랜 동안에 충신도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며, 수구
당(守舊黨)도 드나들고 개화당도 드나들던 광화문아! 평화의 사
자도 지나고 살벌(殺伐)의 총검도 지나며, 일로(日露)의 사절도
지나고 청국(淸國)의 국빈(國賓)도 지나던 광화문아! 그들을 맞
고 그들을 보냄이 너의 타고난 천적이며,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너의 타고난 천명이었다 할진대, 너는 그 자리
그 곳을 떠나지 말아야 네 생명이 있으며,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네 일생을 마친 것이다.

너의 천명과 너의 천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랫동안이니와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은 오늘날 헐리는 그 순간에, 오늘날 옮기는
그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고 말았다.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니,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총독부에서 헐기는 헐되, 총독부에서 다시 지어 놓는다 한
다. 그러나 다시 짓는 그 사람은 상투 짝 옛날의 그 사람이 아
니며, 다시 짓는 그 솜씨는 옛날의 그 솜씨가 아니다. 하물며
이시(伊時). 이인(伊人)의 감정과, 기백과, 이상이야 말하여
무엇하랴? 다시 옮기는 그곳은 북악(北岳)을 등진 옛날의 그곳
이 아니며, 다시 옮기는 그 방향은 경복궁을 정면으로 한 옛날
의 그 방향이 아니다.

서로 보지도 못한 지가 벌써 수년이나 된 경복궁 옛대궐에
는 장림(長霖)에 남은 굵은비가 오락가락한다. 광화문 지붕에서
똑딱 하는 마치 소리는 장안(長安)을 거치어 북악에 부딪친다.
남산에도 부딪친다. 그리고 애달파하는 백의인(白衣人)의 가슴
에도 부딪친다……(1926년)

작가 및 작품해설

설의식(薛羲植)(1900—1954) 언론인. 니혼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사회부에 입사하여 주일특파원으로도 있었던 그는 편집국장을 역임하던중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를 사퇴하고 1947년 《새한일보》를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했다. 주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논설, 시평을 많이 썼는데 “해방이전”. “통일조국”. “난중일기”등 다수 수상집을 간행했다.

그의 수필은 날카로운 현실의식과 강한 민족성 그리고 호홉이 빠른 힘 있는 문체로 특징적이다. 그의 글 속에는 민족주의적인 사관과 지사풍의 자세가 담겨 있는데 《헐러 짓는 광화문》은총독부에 의해 헐려서 다시 지어지는 광화문을 통해 일제치하의 민족의 설움을 호소한 글이다.

단어해석

광화문:	명 이조의 궁궐인 경복궁의 정문.
총독부:	명 총독(總督)이 정무를 보는 관청.
노하다:	자 성내다(높임말)
꾸물거리다:	자 타 몸을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
싫다[설따]:	형 원통하고 슬프다
다못:	부 다만.
역군:	명 ①토목. 건축 따위의 공사 터에서 샅일을 하는 사람. ②일군. 역부(役夫)
둔장:	명 지레. 물건을 움직일 때 쓰는 막대.
절리다:	자 갑작스레 일을 당하여 기가 막혀 하다
정수:	명 사물의 중심되는 요점

청태(靑苔):	명 푸른 이끼.
신세(身世):	명 가련하거나 피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의 처지나 형편.
충신(忠臣):	명 충절을 다하여 섬기는 신하
역적(逆賊):	명 자기 나라 임금에게 반역하는 사람
살벌:	명 하 형 거칠고 무시무시함
터전:	명 자리를 잡고 앉은 곳.
찰나(刹那):	명 짧은 순간
상투:	명 성인된 남자의 머리털을 끌어올려서 틀 어 감아 맨 것.
대궐(大闕):	명 임금이 직접 거처하며 정사를 보던 궁궐
장립:	명 오랜 장마
애달파하다:	타 마음이 아프고 쓰러 하다.

제2과

독서와 인생

이희승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갈대’라고 한 것은 아마 약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갈대는 웬만한 바람일지라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풀리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이와 같은 약한 존재(存在)이면서, 생각하는 작용을 한다. 이 ‘생각한다’는 일, 이것이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한가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靈長)이라 이르는 것도, 이 생각하는 작용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은 그만큼 놀랍고 위대한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문화를 창조하여 내려 왔고, 또 그것을 흐뭇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온전히 사고작용(思考作用)의 덕분(德分)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월세계(月世界)를 다녀오고 또 다른 행성(行星)에 가 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다. 극장에 구경을 갔더니, 막간(幕間)에 배우(俳優)한 사람이 나와서 재담(才談)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방울이 무엇이나?’ 하는 수수께끼를 내고서, 제 스스로 해답(解答)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 해답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제일 큰 방울은, 빗방울, 물방울, 은방울, 말방울, 왕방울, 축방울 등 어떠한 방울도 아니요, 곧

사람의 ‘눈방울’이라는 것이었다. 왜냐 하면, 사람의 눈방울 속에는 안 들어 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주위에 있는 인간, 동물, 주택, 산천초목 등의 모든 풍경이 동공(瞳孔)을 통하여 사람의 눈 속으로 들어온다. 만일 높은 산에라도 올라서면 더욱 넓은 세계(世界)가 눈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천문대(天文臺) 망원경이라도 빌게 된다면, 수억(數億)의 별이 있는 큰 우주가 사람의 조그마한 눈 속으로 들어오게 되니, 눈방울이 과연 크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사람의 사고작용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도(즉 공간을) 생각하여 볼 수 있고, 태양계 생성의 초기로부터 지구 냉각(地球冷却)의 말기(末期)까지도(즉 시간을) 생각하여 보려 하고 또 할 수도 있으니 인간의 생각이란 참으로 굉장(宏壯)한 작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이 이와 같은 생각의 범위를 어떻게 넓히고 높이고 깊게 하겠느냐 하면, 별 수 없이 남의 지식을 빌어 오는 도리밖에 없다, 빌어 오되, 한 사람의 지식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대로 여러 사람의 지식을 대량(大量)으로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현대인의 지식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지식도, 신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지식도 빌어 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고 작용의 도(度)를 넓히고 높이고 하여, 그 활동을 활발하고 왕성(旺盛)하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서적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사고 작용을 활발하고 왕성하게 하기 위하여 서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피차간(彼此間)에 가진 생각을 서로 교환(交換)하는 수단으로 언어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런데, 언어는 이것을 이용하기에 힘이 안 들어 용이하고, 또 돈이 안 들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지마는 표출(表出)하는 순간에 사라지고 말아서 보존하여 두고 되풀이하여 들을 수가 없고, 또 사람의

성량(聲量)은 한도가 있어서, 먼 곳에까지 들릴 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목소리가 큰 웅변가(雄辯家)라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수효는 무한정(無限定) 많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언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이른다. 이 제한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곧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글자를 써서 기록으로 바꾸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이 기록을 두고두고 볼 수도 있고, 또 먼 거리에 보낼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돌려 볼 수도 있다. 사람이 기록을 만들 필요를 이런 일에서 절실히 느끼었고, 따라서 문자를 발명하여 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회화(會話)를 교환하게 되면, 서로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곡진(曲盡)하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편리가 있는 반면(反面)에, 그 말로써의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가 잡히고 조리(條理)가 밝을 수는 없다. 대개는 그 표현이 산만(散漫)하고 중복이 있고 군더더기가 붙어서 간결(簡潔)하고 세련(洗練)된 표현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폐단(弊端)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곧 자기의 생각을 정돈(整頓)하여 기록에 옮기는 일이다. 이러한 정돈된 생각을 조리를 따져가며 체계를 이루어 기록하여 내면, 그것이 곧 책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용 유해(無用有害)한 생각을 서적의 형태를 빌어서 만들어 내는 일은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바를 질서 있게 체계 있게, 그리고 조리가 밝게 기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적은 사색(思索)의 결과요 지식의 창고인 동시에, 사색의 기록이 되며, 지식의 원천(源泉)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의식주(衣食住)의 생활을 충족시키면 인간의 할 노릇을 다하였느냐 하면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의식주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불가결(不可缺)한 필수 조건이지만 사람은 그만 못지 않게 정

신 생활의 신장을 욕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신 생활의 신장이란 이상(理想)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은 어쨌든지 당면한 현 상태에만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생활을 좀더 고도화(高度化), 심화(深化), 미화(美化)한다. 이것이 곧 이상을 추구하는 정열이다. 그리고 이 정신 생활의 고도화를 실현하려면 각 개인의 인격수양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상의 추구뿐만 아니라, 당면한 현실 생활을 질서 있게 평화스럽게 영위(營爲)하려는 데도 각 개인의 인격 수양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수양(修養) 없이는 사람은 자기 본위(自己本位)로만 생각하기 쉽고, 따라서 사회악(社會惡)을 지어 내게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격이나 덕행(德行)의 뒷받침이 없는 지식은 인류 생활의 이익(利益)이나 행복(幸福)을 가져오기는커녕 해독(害毒)과 불행을 지어 내기 쉬운 위험성을 내포(內包)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양에 관한 서적은 사람인 이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등불이라고 할수 있다.

작가 및 작품해설

이희승(李熙昇)(1896—1990). 국어학자. 경성제대 조선어 문학과를 졸업한 후 1931년 ‘조선어문학회’를 창립하고 《조선어 문학회보》를 창간하였다.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해방후 출옥한 뒤 서울대학교 문리대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선어학 논고”. “국어학 개설”. “국어대사전” 등 저서로 국어학연구에 큰 공로를 세웠으며 “뽕어리 냉가슴”. “소경의 잠꼬대” 등 수필집이 있다.

그의 수필은 정확한 문장과 전형적인 우유체, 화려체의 문체로 특징적이다. 여기에 실은 “독서와 인생”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독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의를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다룬 작품이다.

단어해석

쏟리다	자 한쪽으로 치우쳐 몰리다
영장	명 사람을 가리키는 말
흐뭇하다	명 마음이 흡족하다
생성(生成)	명 하 자 사물이 생겨남
표출	명 해 타 ①겉으로 드러내 보임 ②표현
무한정	명 하 형 한정이 없음
꼭진	명 하 형 ①마음과 정성이 지극함. ②자세하 고 간곡함
신장(伸張)	명 하 타 늘이고 펴
영위	명 하 타 일을 경영함

제3과

메 모 광(狂)

이하윤

어느 때부터인지 나는 메모에 집착(執着), 의뢰(依賴)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와서는 잠시라도 이 메모를 버리고 살 수 없는, 실로 한 ‘메모광’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버릇이 차차 커짐에 따라, 내 기억력까지를 의심할만큼 뇌수(腦髓)의 일부 분실(分室)을 메모 뭉텅이로 가득 찬 포켓으로 만든 듯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나는 수첩도 일정한 메모 용지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 종이거나, 원고지도 좋고 휴지도 가릴 바 아니다—다치는 대로 메모가 되어, 안팎으로 상하 종횡(上下縱橫)으로 쓰고 지워서, 일변 닳고 해지는 동안에 정리를 당하고 마는지라, 만일 수첩을 메모와 겸용한다면, 한달이 못 가서 잉크 투성으로 변하거나, 책장 찢어진 나머지의 실오리까지 끊어져 버리거나 할 것이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을 때, 흔히 내 머리에 떠오르는 즉흥적(即興的) 시문(詩文), 밝은 날에 실천하고 싶은 이상안(理想案)의 가지가지, 나는 이런 것들을 망각의 세계로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 머리맡에는 원고지와 연필이 상비(常備)되어 있어, 간단한 것이면 어둠속에서도 능히 적어 둘 수가 있다.

가령, 수건과 비누를 들고 목욕탕을 나선 도중에서 무슨 생

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또 나는 이것을 잊을까 두려워하여, 오직 그 생각 하나에 마음이 사로 잡히게 되나, 거기서 연상(聯想)의 가치가 돌치는 다른 생각 때문에, 기록할 때까지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될 수효가 늘어 점점 복잡하게 된다는가, 또는 큰길을 건너는 자동차를 피하다가, 혹은 친구를 만나 인사와 이야기하는 얼마 동안 깨끗이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생각났던 것을 생각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지 못할 때의 괴로움, 안타까움은 거의 사람을 미치지 않을 만한 정도에까지 유도(誘導)하곤 한다.

그러므로, 목록이나 이발하는 시간같이 명상의 시간을 주면 서도 연필과 종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메모광’에게 있어서 부자유한 시간은 다시 없을 것이다.

꿈에서 현실로 넘어서는 동안, 고개 안팎에서 얻은 실로 좋고 아름다운 생각을, 나는 곧 머리맡에 놓인 종이에 의뢰할 수 조차 있는 일이건만—바쁜 행보(行步) 중, 혹은 약간 취중(醉中)에 기록한 메모의 글자나 그 개념(概念)이 불충분(不充分)할 때, 그것을 모색(模索)하는 고통(苦痛)도 여간한 것이 아니다. 마치 예의 있는 석상에서 상대편의 물패를 우려하여 기자풍(記者風)의 괴벽(怪癖)을 발휘 못하는 고통과 비견(比肩)할 만도 하다. 그래, 그 분명하지 못한 자신의 필적을 응시(凝視), 숙려(熟慮)해 보건만, 결국 신통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적지 아니하다. 연상의 두절(杜絕)로 인한 무의미한 자획(字畫)이 한동안 내 머릿속을 산란하게 해 주었을 따름이요, 그렇다고 별반 큰 변동이 내 자신 위에 발생하는 것은 전연 아니다.

아침마다 나는 그 ‘메모’를 대략 살펴, 그 날의 행사를 발췌(拔萃), 초록(抄錄)해 들고 집을 나서건만, 물론 실행도 그 절반은 될 리가 없다. 기회 있는 대로 정리하고 하는 메모건만, 여기저기 기이한 잉크 흔적을 보여 주는 몇 장의 메모 봉팅이는